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브리프
BRIEF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026. 08
Vol 5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T. 055-713-7076 F. 055-713-7093 www.gnwff.or.kr

문정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경남 아동돌봄 통합지원의 방향과 과제

01. 경남 아동돌봄 환경의 변화

02. 경남 아동돌봄의 현실

03.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향후 방향

■ 오랜 기간 지속된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과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의 필요성과 요구는 꾸준히 높아져 왔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을 확충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아동돌봄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 그러나 방과 후 홀로 있는 아동의 돌봄 공백과 아침·저녁, 방학·휴일, 긴급상황 등 다양한 틈새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돌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이나 사업 중심의 접근을 넘어 아동돌봄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현재 아동돌봄 정책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를 중심으로 분산 추진되고 있으며, 돌봄기관마다 지원체계와 인력·운영비,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이 상이하여 서비스 간 단절과 지역·기관 간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아동인구 감소는 일부 지역의 돌봄 인프라 축소와 운영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에는 기존 돌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경상남도는 2024년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돌봄 통합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돌봄시설의 공간적 복합화는 가능하지만, 소관부처와 법적 근거, 운영체계가 상이한 기관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통합지원은 조직의 통합보다는 아동의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지역의 다양한 돌봄자원과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앙정부의 초등돌봄 정책 역시 학교 중심의 돌봄 확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돌봄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단위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교육부의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서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 운영,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 간 역할 분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돌봄모델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 단위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본 고에서는 경남의 아동돌봄 환경 변화와 돌봄 공백을 살펴보고, 지역의 다양한 돌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의 돌봄을 끊김 없이 이어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01. 경남 아동돌봄 환경의 변화

아동인구 및 초등 학령인구 감소

- 경남의 만 0~17세 아동인구는 2020년 523,311명에서 2025년 431,499명으로 17.5% 감소하였으며, 만 7~12세 인구도 같은 기간 194,369명에서 162,691명으로 16.3% 감소함. 저출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체 아동인구뿐 아니라 초등돌봄의 주요 대상이 되는 학령기 아동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 아동인구 감소는 단순히 돌봄 수요가 줄어드는 문제로 보기 어려움. 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맞벌이 가구 증가, 돌봄 시간의 다양화, 방학·야간·긴급 상황 등 특정 시간대의 돌봄 수요는 지속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설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특히 아동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기존 돌봄시설의 운영 지속가능성, 적정 이용인원 확보,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향후 아동돌봄 정책은 단순한 시설 수 확대보다 지역별 아동인구 변화와 이용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기존 시설의 유지·재배치·거점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1 아동인구 및 초등 학령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20년		2025년		'20년 대비 '25년 증감률	
	만 0 ~ 17세	만 7 ~ 12세	만 0 ~ 17세	만 7 ~ 12세	만 0 ~ 17세	만 7 ~ 12세
경상남도	523,311	194,369	431,499	162,691	-17.5	-16.3
시 지역	473,503	175,842	393,905	149,586	-16.8	-14.9
군 지역	49,808	18,527	37,594	13,105	-24.5	-29.3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차이

- 아동인구 감소는 시지역보다 군지역에서 더 빠르게 나타남. 2020년 대비 2025년 만 0~17세 아동인구는 시지역에서 16.8% 감소한 반면 군지역에서는 24.5% 감소하였으며, 만 7~12세 인구는 시지역 14.9%, 군지역 29.3% 감소하여 지역 간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남
- 특히 군지역의 만 7~12세 인구가 5년간 약 30% 감소한 점은 향후 초등돌봄 공급방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집중되어 시설 확충과 접근성 개선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으나, 군지역은 소규모 인구가 넓게 분산되어 있어 새로운 시설의 지속적 확충만으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에 따라 군지역에서는 기존 돌봄시설과 공공시설의 공동 활용, 권역별 거점 운영, 지역 간 연계, 이동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접근이 중요함. 반면 시지역은 특정 생활권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생활권 단위의 공급 부족 여부를 파악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함

학교 중심 초등돌봄의 확대와 정책 전환

-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 지원해 왔으며, 2025년까지 학교 내 초등돌봄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었음. 경남에서도 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 돌봄프로그램,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 내 돌봄과 방과후 활동이 확대되면서 초등돌봄에서 학교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음
- 2026년부터는 기존 늘봄학교 정책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전환하여 학년별로 달라지는 돌봄과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초등 1·2학년은 기존 방식의 무상 프로그램과 돌봄 지원을 유지하고, 초등 3학년 이상은 돌봄 수요에 따라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초등 3학년에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을 제공하여 교육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함

■ 또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은 지역사회-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초등돌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 광역·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에도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며, 지역별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도 지원함
-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이 역할을 구분하여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협력모델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학교가 모든 돌봄 수요를 직접 담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특히 방학, 야간, 주말, 긴급돌봄과 같이 학교가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돌봄기관의 기능과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초등돌봄은 학교 내 공급 확대 자체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의 돌봄자원이 어떤 영역을 분담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 경남 늘봄학교 이용 현황(2025년)

(단위: 개교, 실, 명)

구분	맞춤형 프로그램[1]		선택형 돌봄프로그램[2]			선택형 교육프로그램(주당)[3]		
	개소수	이용인원	개소수	교실수	이용인원	개소수	프로그램수	이용인원(평균)
합 계	522	11,889	515	1,083	22,862	522	3,256	6,887

자료: 경상남도교육청 내부자료(2025년 9월 기준임).
주: 1)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인원은 1~2학년 기준임.
2) 선택형 돌봄프로그램 이용인원은 1~6학년 기준임.
3)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이용인원은 주당 평균인원임.

» 지역사회 돌봄자원의 확대와 역할

■ 경남의 지역사회 아동돌봄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서비스는 이용대상, 운영시간, 지원방식 등이 서로 다르며, 학교 밖 돌봄과 가정 내 돌봄 등 각기 다른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

표 3 지역사회 아동돌봄기관 유형별 주요 특징

구분	주요대상	운영시간	비고
지역아동센터	18세 미만 아동 ※ 우선돌봄아동 우선 (소득기준,다자녀)	(학기) 13:00~20:00 (방학) 12:00~17:00 ※ 필수운영시간을 포함한 8시간 이상 운영 토요 운영 : 최대 14시까지 평일 야간연장 : 최대 24시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다함께돌봄센터	6~12세 아동 ※ 일반아동(소득수준 무관)	(학기) 13:00~20:00 (방학) 09:00~18:00 연장 운영 : 07:00~09:00, 20:00~22:0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초4 ~ 중3	방과후~21시, 주5~6일 운영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아이돌봄서비스	3개월 ~ 12세 미만	365일, 24시간 언제나 신청 가능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자료: 경상남도 내부자료(2026년 7월 기준임).

■ 최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시설형 지역돌봄은 기관 수와 이용 아동 수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 유형별 이용 규모와 운영 특성에는 차이가 나타남. 특히 기관마다 이용대상과 운영시간, 인력 및 재

정지원 방식이 달라 단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를 분담하는 것이 현실적임

- 2026년부터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책임과 협력모델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돌봄기관은 학교돌봄을 단순히 대체하는 역할보다는 방학·야간·주말·긴급돌봄, 고학년 돌봄 등 학교가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4 지역사회 아동돌봄기관 운영실적 (2024~2026년)

구분	기관수(개소)		이용 아동 수(명)	
	2024.12월 기준	2026.7월 기준	2024.12월 기준	2026.7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280	281	7,385	8,009
다함께돌봄센터	38	50	791	1,04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7	27	1,025	1,025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20	20	9,443	6,287

경남의 틈새돌봄 강화

- 경상남도는 방학 중 발생하는 돌봄과 급식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급식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2021년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2023년 전 시군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학교돌봄뿐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 이용 아동까지 지원범위를 넓혀 왔음
- 2026년 1월 겨울방학 기준 18개 시군 29,294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돌봄 이용 아동 28,280명과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이용 아동 1,014명이 포함됨. 이는 방학 중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돌봄뿐 아니라 식사까지 함께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2026년부터 학교와 기존 마을돌봄기관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방학 중 돌봄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방학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9개 시군 14개소에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청소년문화의집 등을 활용한 '한끼 방학돌봄'과 어린이집 유휴공간과 여유정원을 활용한 '온종일 방학돌봄'으로 구분하여 돌봄과 급식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임
- 특히 이 사업은 새로운 돌봄시설을 설치하기보다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민간 유휴공간과 인력을 활용하여 돌봄 공백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특정 시간대의 돌봄 수요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향후 방학뿐 아니라 야간·주말·긴급돌봄 등 다른 틈새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표 5 경상남도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현황

(단위: 명, 개교, 개소)

시군	합계 (A+B)	학교돌봄				마을돌봄 (다함께돌봄센터)	
				학생수			
		참여 학교	소계(A)	방학 중 돌봄 (돌봄교실+틈새돌봄)	맞춤형 프로그램	센터수	학생수(B)
합계	29,294	530	28,280	18,999	9,281	45	1,014

자료: 경상남도 내부자료(2026.1월 겨울방학 기준).

02. 경남 아동돌봄의 현실

1) 이용자 조사에서 본 돌봄의 공백과 요구

■ 2025년 본 재단에서 수행한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도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735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이용실태와 정책수요를 조사하였음

■ 조사 결과 방학·고학년·긴급상황에서 돌봄공백이 두드러졌으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생애과정별 단절, 기관별 분절, 지역별 차이가 확인되었음. 동시에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간 연계 활성화와 지역 내 고른 돌봄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방학·고학년·긴급상황에서 나타나는 돌봄공백

■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은 학기 중보다 방학에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돌봄공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학기 중 평일에 3시간 이상 혼자 있는 아동은 전체의 29.7%였으며, 1·2학년 22.9%, 3·4학년 32.3%, 5·6학년 39.0%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짐
- 방학 중 평일에는 3시간 이상 혼자 있는 비율이 46.4%로 높아졌으며, 5·6학년의 경우 63.2%에 달해 방학기간과 고학년에서 돌봄공백이 더욱 두드러짐
- 시·군별로는 군지역의 혼자 있는 시간이 시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인구가 분산되고 돌봄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는 돌봄 접근성 문제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표 6 자녀 혼자 보내는 시간

(단위: 명, 개교, 개소)

구분	전체	지역별		학년별		
		시지역	군지역	1·2학년	3·4학년	5·6학년
학기 중 평일 3시간 이상 혼자 있음	29.7	29.5	31.7	22.9	32.3	39.0
학기 중 주말 3시간 이상 혼자 있음	27.2	26.9	30.1	19.6	28.6	39.5
방학 중 평일 3시간 이상 혼자 있음	46.4	46.1	49.2	35.4	49.3	63.2
방학 중 주말 3시간 이상 혼자 있음	27.1	26.6	31.7	21.1	27.2	37.9

■ 정기적인 방과후 돌봄뿐 아니라 질병이나 보호자의 개인 일정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긴급돌봄 수요도 높게 나타남

- 자녀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할 때 공공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5%, 보호자의 개인 일정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했던 경험은 65.9%로 나타남
- 이는 초등돌봄 정책이 정규 방과후 시간 중심의 공급을 넘어 방학·긴급상황·고학년 등 다양한 돌봄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표 7 긴급돌봄·일시돌봄 수요

(단위: %)

구분	전체	지역별		학년별		
		시지역	군지역	1·2학년	3·4학년	5·6학년
자녀 질병 시 공공돌봄서비스 필요함	53.5	53.0	58.7	53.6	51.6	55.5
부모 개인일정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필요함	65.9	65.2	73.0	67.3	65.0	64.3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단절과 분절

■ 공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제 이용과정에서의 단절과 분절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적 초등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생애과정별 서비스 단절 경험은 38.7%, 기관별 서비스 차이 경험은 30.6%, 지역별 서비스 차이 경험은 36.8%로 나타나, 이용과정에서 서비스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표 8 긴급돌봄·일시돌봄 수요

(단위: %)

구분	서비스 단절 경험	서비스 분절 경험	서비스 격차 경험
전체	38.7	30.6	36.8
시지역	37.9	31.0	36.8
군지역	45.6	26.3	36.8

주: 1) 서비스 단절: 학년이 바뀌면서 돌봄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느낀 경우
2) 서비스 분절: 기관별로 돌봄서비스가 다르다고 느낀 경우
3) 서비스 격차: 기관별 돌봄서비스가 지역 및 동네별로 다르다고 느낀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가까운 돌봄과 연결

■ 향후 초등돌봄서비스의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돌봄기관을 한 공간에 집중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내 접근성을 높이고 학교와 마을돌봄을 연계하는 방향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돌봄기관이 지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설치'에 대한 동의도가 평균 3.3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돌봄 중심 기능 강화'와 '학교돌봄·마을돌봄 기관의 연계·활성화'가 각각 3.2점으로 뒤를 이음
- 이는 이용자들이 특정 공간에 돌봄기능을 집중하기보다는 생활권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돌봄자원을 확보하고,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 간 기능을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1 향후 초등돌봄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

(단위: 점)



2) 돌봄기관 통합의 구조적 제약과 현실적 접근

- 아동돌봄기관은 소관부처, 법적 근거, 이용대상, 인력기준, 재정지원, 운영시간 등이 서로 달라 조직과 운영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 그러나 조직적 통합이 어렵다고 해서 통합적 돌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돌봄기관·공공시설 간 기능을 연계하거나, 여러 돌봄기능을 한 공간에 배치하는 복합공간 조성 등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지역 단위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 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 공간 공동 활용, 이동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복합 시설이나 돌봄·교육·문화 기능을 함께 배치한 복합공간 조성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경남의 아동돌봄 통합지원은 모든 기관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단일한 방식보다는 기능연계, 공간복합화, 공동사업, 정보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때 통합의 초점은 기관 자체의 통합보다는 아동의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둘 필요가 있음

03.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향후 방향

1) 정책 방향

» 시설 중심에서 '생활권 돌봄'으로

- 아동인구 감소와 지역별 수요 차이를 고려하여 신규시설 확충뿐 아니라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공시설 등 기존 돌봄자원의 위치·정원·운영시간 등을 생활권 단위로 파악하고, 돌봄 취약지역과 시간대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관 연계에서 '돌봄공백 대응'으로

- 기관 간 연계 자체보다 방학·야간·주말·긴급상황·고학년 등 실제 돌봄공백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단일 모델에서 '지역맞춤형 돌봄'으로

- 시지역은 수요 집중과 접근성, 군지역은 아동 감소와 이동거리 등 여건이 다른 만큼, 기능연계· 공간복합화·유휴공간 활용·이동지원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합할 필요가 있음

2) 향후 추진과제

■ 경남 아동돌봄 통합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별 돌봄공백 진단, 틈새·긴급돌봄 대응, 정보연계, 협력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과제를 제안함

추진과제	주요내용
① 생활권 기반 돌봄공백 진단 및 대응	아동인구와 학교·지역사회 돌봄자원을 생활권 단위로 파악하고, 지역별·시간대별 돌봄공백을 진단하여 거점기관 지정, 운영시간 조정, 유휴공간 활용, 이동지원 등 지역별 대응방안을 마련
② 방학돌봄 확대 및 틈새·긴급돌봄 거점기능 강화	현재 추진 중인 방학돌봄의 운영지역·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야간·주말·긴급·고학년 등 다양한 돌봄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기능을 강화
③ 이용자 중심 돌봄정보 연계 강화	기관별 정보 제공을 넘어 아동의 연령·거주지역·이용시간 등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쉽게 확인하고 연결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체계를 개선
④ 도-교육청-시군 돌봄협력체계의 실질적 운영	도가 시군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시군별 돌봄공백과 기관 간 역할 분담, 연계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하는 도 차원의 지원·점검·조정 기능을 강화